

-고서야

~하고 나서야 비로소, ~하고서야

무언가가 마침내 가능해지거나 분명해진 순간을 나타냅니다. 야가 ‘그제야 비로소’라는 뜻을 더하며,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느낌을 줍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	-고서야	겪다 → 겪고서야
ㄹ 어간은 ㄹ 유지	-고서야	만들고서야
자주 함께 쓰는 말	비로소	겪고서야 비로소 알았다
반어적 용법	-고서야 ... -겠는가?	... 성공할 수 있겠는가?
시제 불가	어간만 씀	겪었고서야(×)
중립적 순서	-고 나서	먹고 나서 갔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동사 어간에 -고서야를 붙입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ㄹ도 유지되며, 앞에 시제가 오지 않습니다. 과거는 마지막 동사에 붙입니다.

주된 용법은 뒤늦은 깨달음이나 성취: 직접 겪고서야 그 마음을 알았다는 나타내는 것입니다. 직접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했다는 식이며, 부사 비로소와 자주 함께 씁니다.

두 번째 용법은 반어적인 것으로, 그런 조건에서는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: 준비도 없이 시작하고서야 성공할 수 있겠는가? 이때 문장은 ‘아니다’라는 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으로 끝납니다.

두 용법 모두 늦었거나 부족하다는 느낌을 공유하며, 이 점에서 중립적인 다음 표현과 구별됩니다: -고 나서.

■ 예문

- 1 직접 겪고서야 비로소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.
- 2 한참을 찾고서야 겨우 열쇠를 발견했다.
- 3 병이 나고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.
- 4 직접 만들고서야 그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.
- 5 준비도 없이 시작하고서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?
- 6 모두가 떠나고서야 조용해졌다.

■ 비교

-고 나서

-고 나서는 두 행동의 순서를 나타낼 뿐이고, -고서야는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을 더하며 대개 늦었다는 느낌을 줍니다.

먹고 나서 갔어요. (먹은 다음 갔다) / 겪고서야 알았어요. (겪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다)

-았/었더니

-았/었더니는 행동한 뒤 알게 된 것을 전하고, -고서야는 그 깨달음이 늦게, 그때서야 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

가 봤더니 없었어요. (가 보니 없었다) / 가 보고서야 알았어요. (가 보고 나서야 알았다)

-아/어야

-아야는 어떤 일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나타냅니다. -고서야는 그 조건이 뒤늦게 충족되었음을 말합니다.

겪어야 알아요. (겪어 봐야 안다) / 겪고서야 알았어요. (겪고 나서야 알았다)

■ 주의

- ✗ 직접 겪었고서야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.
- 직접 겪고서야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.
-고서야는 시제를 받지 않습니다. 과거는 마지막 동사에 한 번만 나타냅니다.
- ✗ 밥을 먹고서야 회사에 갔어요.
- 밥을 먹고 나서 회사에 갔어요.
단순히 행동의 순서를 말할 때는 -고 나서가 맞습니다. -고서야는 뒤의 일이 그 때서야 가능했었다는 뜻을 담습니다.
- ✗ 준비도 없이 시작하고서야 성공할 수 있어요.
- 준비도 없이 시작하고서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?
반어적 용법에서는 문장이 ‘아니다’라는 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으로 끝나야 합니다.